
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 | 보도자료 | 2026. 4. 21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 | | |
| 농업기술원 | | 과수연구과장 | 고승찬 | ☎ 760-7400 |
| | | 감귤연구팀장 | 오명협 | ☎ 760-7411 |
| | | 홍보담당자 | 양지순 | ☎ 760-7514 |

국내 육성 ‘미래향’ 추석 출하 가온재배 연구 착수

- 농기원-감귤연구센터, 1월 가온 시작 9월 수확 목표...출하시기 다변화 모색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는 국내 육성 만감류 ‘미래향’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, 출하 시기 다변화를 위한 가온재배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.
- 최근 국내 육성 감귤 재배면적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. 특히 ‘미래향’은 2022년 1.0ha에서 2025년 33.0ha로 급격히 확대됐다.
 - * 국내육성 감귤 재배면적 변화: ‘21) 639 → ‘24) 911 → ‘25) 990ha
 - * ‘미래향’ 재배면적: ‘22) 1.0 → ‘23) 4.0 → ‘24) 18.0 → ‘25) 33.0ha
- 현재 제주에서 가온재배를 통해 추석 명절 출하가 가능한 만감류는 일본 육성 품종인 ‘애원과시28호(상표명: 황금향)’가 유일하다.
- 2024년 기준 가온재배 황금향의 8~9월 출하량은 464톤으로 전체의 11.0%를 차지하고 있으나, 껍질 벗기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.
- 농업기술원은 연내 수확이 가능한 국내 품종 ‘미래향’을 대상으로 가온재배를 통해 9월 추석 출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,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.
- ‘미래향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에서 육성한

품종으로 평균 과실 무게는 약 180g, 당도 12.0° Bx, 산 함량 1.0% 수준이다.

- 무가온 재배 시 12월 중·하순에 수확하며 수세가 강하고 결실이 안정적이다. 특히 껍질 벗기기가 쉽고 부피과(껍질이 들뜨는 현상) 발생이 없는 것이 큰 장점이다.
-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20일부터 가온을 시작해 수확 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재배 방법을 적용해 기존 가온재배 품종인 황금향과 과실 품질 및 수량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.
- 가온재배 밤 온도는 △가온 시작~발아기(1월) 22.0℃ △출뢰기~생리낙과기 종료(2~5월) 17.0℃ △과실비대기(6월) 22.0℃ △착색기(7~8월) 자연 온도로 관리한다.
- 오명협 감귤연구팀장은 “작년부터 시험 중인 농업기술원 육성 만감류 ‘우리향’ 과 더불어 ‘미래향’ 품종 연구를 통해 신품종의 추석 출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” 며 “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 국내 육성 만감류에 대한 가온재배 기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다” 고 밝혔다.